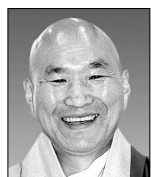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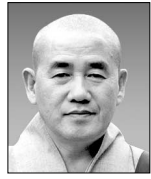
시설장협의회 제2대 회장 선임 김천 직지사 주지 성홍 스님은 3월 30일 열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 2006년 1/4분기 회의에서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용주사 거사회 창립 2주년 법회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3월 24일 용주사 전보루에서 김영광 회장을 비롯해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사회 창립 2주년 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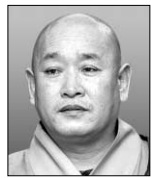
'새벽처럼...' 출판 기념법회 부산 감포사 주지 혜홍 스님은 4월 17일 오후 6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저서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수행관 법당 원불점안식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 스님은 4월 26일 오후 2시 중앙승가대학교 육화당 3층 법당에서 수행관 법당 원불점안식을 봉행했다.



불교미술학회 제7회 학술대회 불교미술학회장 범하 스님은 4월 7일부터 8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불교미술학회 제7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난치병 어린이 살리기 3000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은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조계사에서 '제6회 난치병 어린이 살리기' 3000배 정진기도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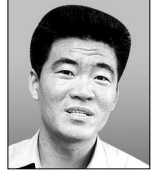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원장에 금산 유점사 주지 동욱 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졸업)은 4월 1일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신임 원장으로 부임했다.



한국수필문학진흥회 7대 회장에 수필가 맹원자에세이문화 발행인씨는 3월 24일 열린 회의에서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제7대 회장으로 선출, 취임했다.



외국인 대상 의료봉사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이원철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4월 16일부터 조계사 '가'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서울시의원 선거 출마 선언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정우식 정책기획팀장은 4월 6일 종로구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외국 대학도서관에 한국불서 많아야”

‘삼국유사’ 영어 완역본 낸 김달용 교수… 불교용어 ‘다단계 번역’ 주목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서와 고대 역사의 영어번역이 절실합니다.”

전남대 김달용(57·영문교육과·사진) 교수는 최근 <삼국유사>의 영어 완역본인 <Overlooked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orean Kingdoms(지문당 刊)>을 출간했다.

아산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번역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진행됐다. <삼국유사>는 일연 스님이 집필했으며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고대 역사뿐만 아니라 설화 민속신앙 종교 신화 전설 지리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한민족의 생활을 그린 역사서.

1970년대 <삼국유사>의 주요 부분을 발췌한 번역본이 나왔지만 본격적인 완역본이 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 때문에 불교계와 학계에서도 영어문화권에 보급될 이

전에 대한 번역본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번역 동기를 밝혔다.

이 책이 더욱 가치를 발하는 이유는 불교용어와 한국의 정서를 그대로 영역본에 옮기기 위해 어휘선택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는 것. 번역과정에서 김 교수는 한자로 쓰여진 불교용어의 뜻을 이해해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추적하고, 이를 다시 영어로 옮기는 다단계 번역 과정을 거쳤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학부 및 대학원 강의의 자신의 모든 시간을 이 작업에 할애했다. 완역한 후에도 스님과 동료 외국인 교수들에게 원문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감수 받았다.

김 교수는 “<삼국유사> 영역본 번역을 통해 불교를 새롭게 접하게 됐으며 앞으로 <해동고승전> <해동지적> 등 유·불·선 번역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sasimani@buddhanews.com

부산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취임법회



부산 삼광사 제9대 주지 취임법회가 4월 1일 지관전에서 봉행됐다. 천태종 신임 감사위원장 춘광 스님의 증명하에 진행된 이날 법회는 1만 5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천일 주지 도원 스님에 대한 감사패 전달, 이임사, 직인전달, 영제 스님 취임사,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



양산 통도사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통도사 설법전에서 불기 2550년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범망경의 보살계 중 10중계를 살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날 입재 법회는 전계 대화상 해남, 갈마 아사리 지중, 교수 아사리 지안 스님을 비롯한 3사 7중사의 증명아래 봉행됐다.

양평 운문사 은행나무 대제



양평 운문사(주지 의정)는 3월 31일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나무 대제 및 산신제를 봉행했다. 불교전통 범패의식으로 진행된 산신제에서 참석자들은 주지 의정 스님의 법어를 들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새롭게 인식했으며 조상의 극락왕생과 자손의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보현의 집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외국인근로자 상담지원센터 구미 마하루다 보현의 집(대표 진오)은 4월 2일 외국인 노동자 40여명을 초청해 무료진료 등을 실시했다. 이날 순천향대학 구미병원 이길노 원장 등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환수를 달랄 수 있도록 기탄을 기증하고 무료진료도 진행했다.

태안 안면암 장학회 장학금 전달



2002년부터 장학금을 전달해 온 태안 안면암 장학회는 4월 4일 안면암 큰법당에서 2006년도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김명순 장학회장은 고등학생 5명(각 30만원씩), 중학생 10명(각 20만원씩), 초등학생 21명(각 10만원씩) 등 총 36명의 학생들에게 560만원을 장학금을 수여했다.

미륵종 총무원장 승정 스님 법무부장관 표창



미륵종 총무원장 승정 스님(사진)이 최근 교정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전정배 법무부장관 표창패를 받았다.

승정 스님은 부산교도소 교정위원을 맡아 10여 년간 재소자들을 위해 매달 2회씩 교정활동을 펼쳐왔다.

영민 서부경남 지사장

“무분별한 도로건설 중단돼야”

대구 앞산 순환로 반대 나선 선진 스님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사진)이 앞산을 관통하는 4차순환도로 건설 반대운동에 동참했다. 스님은 4월 5일 대구 달서구 앞산 달비골 입구에서 열린 앞산관통도로 건설 반대 촛불집회에 동참해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연산관통도로건설을 반대하는 연대를 맺고 하룻밤을 묵으며 더불어 사는 삶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14일째 연일 이어진 촛불집회 행사에는 민주노동당 광성수 환경위원장을 비롯해 대서구 지역 교조교사와 시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선진 스님은 “부처님과 예수님은 모두 더불어 사는 삶을 일러주셨다”며 “인간의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한다”고 주장했다.

배지선 기자

고구려고분 조사 방법

강만길 남북역사학자협회위원장

남북역사학자협회의 강만길(사진) 위원장은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될 북한 내 고구려 고분 10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방북한다.



남북역사학자협회의 북한 민족화해협의회가 주관하고 남북 문화재청과 북측 문화보존지도국이 지원하는 이번 조사의 결과는 고구려 고분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만길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단은 평양에서 착수기념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남동우 기자

박소영 기자가 한국대학신문 권형진 기자와 4월 16일 오후 2시 40분 청원 가든예식장 오페라홀에서 화측을 밝힌다. (여수령 011-357-9726)

신비의 마이산 탐사... 마이산의 메아리... 이왕선(혜명) 지음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예천법사